

2026 ————— 양평군의의회

의정소식지

YANGPYEONG COUNTY COUNCIL NEWS LETTER

vol. 48



양평군의의회
YANGPYEONG COUNTY COUNCIL

발행처 양평군의회 발행일 2026년 3월 16일(48호) 발행인 양평군의회회장 디자인·인쇄 이야기담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전화 031-770-2539 홈페이지 www.ypcouncil.go.kr

- 본 소식지 구독 및 주소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유선전화(031-770-2539)로 신청해주세요.
- 웹진은 양평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는 양평군의회 공식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일러스트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양평군의회 의정소식지 vol.48

<p>02 신년사 양평군의회회장 오혜자</p> <p>04 양평군의회의원 현황 선거구별 의원 현황</p> <p>06 회기운영 (1-1)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1-2)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1-3)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p> <p>38 결의문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문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인권 유린 규탄 결의문</p>	<p>43 정책연구활동 양평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물환경 규제 합리화 방안</p> <p>46 의정소식 양평군의회 주요 소식</p> <p>52 군정소식 양평군 주요 소식</p> <p>57 회기일정 2026년도 양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 및 달력표</p> <p>59 의회 참여 안내 회의 방청 공식채널 소개 소식지 구독 신청 안내</p>
--	---



양평군의회의장 오혜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사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편안, 그리고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3만여 양평군민 여러분,
양평군의회의장 오혜자입니다.
희망찬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
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힘차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양평은 크고 작은 도전 속
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지혜와 연대, 그리고 묵묵한 노력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양평을 사랑하고 아끼는 군민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양평군의회의장으로서, 그리고 군민을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
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도약과 전진,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상징하는
해입니다. 양평군의회 또한 이 상징처럼 군민의 삶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양평군의회가 지켜나갈 목표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의회로 만들겠습니다.

양평군의회는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며,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마을과 골목, 삶의 터전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 가겠습니다. 어르신이 존중받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며, 청년이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양평, 소상공인과 농업인이 정당한 땀의 가치를 인정받는 양평을 위해 군민의 삶을 기준으로 모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둘째, 책임과 신뢰로 일하는 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아야 합니다. 양평군의회는 새해에도 집행부에 대한 건설적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군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정책 하나하나가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불필요한 갈등보다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해법을 찾는 의회, 정파와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양평의 미래만을 바라보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과 예산 심의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군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양평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양평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소중한 터전입니다. 이 가치를 지키면서도 미래 세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지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환경 보전과 조화로운 발전,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균형 있는 성장,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 양평군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보훈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양평을 만들기 위해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차근 차근 다져 나가겠습니다. 붉은 말의 해처럼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추진력으로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3만여 양평군민 여러분, 양평군의회는 언제나 군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양평군의회는 그 기대에 행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양평군의회회장  올림

행정구역으로 본
제9대 양평군의회
의원 현황



가선거구

- 양평읍
- 양서면
- 옥천면
- 서종면



의원명	의장 오혜자	의원 윤순옥	의원 최영보
소속정당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담당지역	총괄	양서면 · 서종면	옥천면 · 양평읍
담당분야 및 담당부서	총괄	문화 · 관광 · 교육 · 행정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 관광과, 평생학습과	복지 · 보건 · 민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사무실	031-770-2500	031-770-2533	031-770-2532
홈페이지			



나선거구

강상면 · 강하면
 단월면 · 청운면
 양동면 · 지평면
 용문면 · 개군면



의원명	부의장 지민희	의원 송진욱	의원 여현정
소속정당	국민의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담당지역	강하면 · 지평면 · 개군면	강상면 · 청운면 · 양동면	단월면 · 용문면
담당분야 및 담당부서	일자리 · 산업 · 경제 일자리경제과, 정원산림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축산반려동물과	지역개발 · 세무 · 회계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수도사업소, 세무과, 회계과, 데이터정보과	환경 · 도시 · 안전 기후환경과, 청소과, 도시과, 도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환경사업소
사무실	031-770-2501	031-770-2535	031-770-2531
홈페이지			

PART

1-1



회기운영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양평의 발전을 염원하는 한 목소리



영상회의록

오혜자 부의장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 9. 5.(금)



존경하는 12만 9천여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부의장 오혜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국책 사업이 중단되고 전례 없는 특검팀이 양평군청 압수수색으로 군청은 심각한 혼란과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추측과 확정 편향, 무책임한 의혹이 난무하는 방송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의원으로서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군 의원은 때로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책무는 군민의 안전과 양평의 미래 발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입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때 비로소 의회가 바로 서며 군민께 믿음직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사실의 일부만을 전체의 진실인 양 호도하며 억지 주장을 사실처럼 포장하는 등 복박전을 방불케 하는 왜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질책하기는커녕 동조하거나 앞장서는 듯한 일부 의원의 태도입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과연 그것이 군민을 위한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7월 우리는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뼈아픈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가까운 동료를 단죄하는 고통은 컸지만 그것은 개인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회의 원칙을 세우고 신뢰와 품격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과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취, 유포한 행위로 의회로부터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이유로 제명을 무효화 했지만, 판결문에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 인정됨을 밝혔습니다. 제명은 과하지만 의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였음은 명백히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반성과 자숙은커녕 스스로 여전사라 부르며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 승리자인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일방 지시, 공무원의 개입, 경제성 평가 부실 등을 거론하며 결국 모든 것이 특정인 땅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 의혹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개발 사업은 인근 토지 소유자를 위한 특혜라는 궤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사실처럼 포장하는 방송 행태는 군민을 현혹시키는 무책임한 선동일 뿐입니다. 특히, 2016년 개통된 남양평IC를 두고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입니다. 남양평 IC 개통 이후 출퇴근, 주말마다 극심했던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남양평IC는 하이패스 전용 IC입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 IC와 단순 비교하면 교통량이 적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비교입니다. 실제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월평균 이용 현황을 보면 남양평IC와 양평IC 모두 결코 적지 않은 교통량을 소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양평IC는 일평균 1만 947대, 남양평IC는 7,002대가 이용했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두 IC의 필요성을 분명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만약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없었다면 양평의 교통 체증은 훨씬 심각해졌을 것이며, 주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렵게 개통을 이끌어낸 공무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발언은 곧 군민을 무지한 존재로 치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사안은 특검수사로 엄정히 조사 중입니다. 지난 8월 20일 특검팀은 양평군청을 비롯해 국토부, 도로공사, 용역 업체 등을 대규모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근거 없는 주장을 사실처럼 퍼뜨리는 행위는 군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는 경솔한 언동일 뿐입니다.

의원은 군민의 신뢰로 선출된 공적 대표자입니다. 품위와 책임을 잃는 순간 의회의 의원 모두 존재 이유를 잃습니다. 지금처럼 군민의 숙원이 지연되고 행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의원은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단순한 SOC사업이 아닙니다.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양평의 미래 전략 사업입니다. 특히, IC를 포함하는 노선은 군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요소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의회는 더 이상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실질적 이익을 지켜야 하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더 이상 억지 주장과 정치쇼에 매달리지 말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이 혼란의 시기에 군민과 고통을 함께하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정부와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12만 9,000여 양평군민이 정치적 논란으로 불안과 피해를 겪지 않도록 IC를 포함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한 의회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 군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다툼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안정입니다. 당리당락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둘 때 비로소 의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려운 시기에 군민의 삶을 지키고 양평의 발전을 앞당기는 길은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의회의 책무를 다한다면 의회는 군민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이자 믿음직한 반석이 될 것입니다.

군민들이 의회를 신뢰하고 기대어 설 수 있도록 저희 동료 의원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이자 군민 앞에 드리는 의회의 약속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민을 위한,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영상회의록

최영보 의원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2025. 9. 5.(금)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 행정이 안주와 관성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 양평군 소속 어느 센터의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참담했습니다. 센터의 책임자와 일부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험담과 폭언을 일삼고 고용 불안을 조성하며 심지어는 보조금과 센터의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군의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군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이 센터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있지만 손이 닿지 않고 조례

도 있으나 보호받지 못하는 이중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23년 장애아이 참여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장애아이들의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24년도 같은 프로그램에는 장애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23년도 장애아이들의 복지카드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2024년도 프로그램에 250만 원 이상의 예산을 가족, 지인들과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며칠에 걸쳐 그 부모와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제보 그대로 24년도에 참여하지 않으셨고, 예산은 사적 불법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장애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장애 아이들을 키운다는 이유로 그 단체와 갑과 을의 관계로 사는 것도 비참한 일인데 이 사건에 대해 참담하고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도 가족복지과의 해당 복지팀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부 노무사협회의 공정성을 담보한 사실관계 조사를 의뢰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서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군민을 위한 모범적인 행정의 모습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서가 이처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군 기관에서 당직자가 당직근무 중 복무지를 이탈해 음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고 하나 조사 과정은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했고 객관적 사실 확인이나 주변 진술 청취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해당 관리 책임이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복무 위반은 해당 기관에 자체적으로 처분할 문제이며 군이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에는 양평군 감사 규칙이 있고 이에 따르면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 의회사무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금 수혜기관 등까지 그 적용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의 종류 중에는 특정감사로서 복무감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가 복무에 대해서는 군이 개입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명백히 규칙을 외면한 것이

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 행정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같은 군청 안에서도 어떤 부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반면, 다른 부서는 규정이 있음에도 스스로 권한을 부정하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차이는 결국 제도의 유무보다는 집행부 담당자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증명합니다. 사실 군 기관이나 민간 위탁하는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고충 관련 민원을 받은 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도움을 드릴 방법을 고민하면서 양평도 법과 조례의 사각지대에 몰린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 이를테면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에만 18개가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도를 비롯해 구리, 고양, 수원, 평택, 부천, 광명시는 주민을 위한 자체 인권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처음에는 양평군민도 이 조례의 인권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조례상 인권센터의 상담 대상은 도 및 그 소속기관, 도내 시군,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행하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상담 및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평군의 민간 위탁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는 구제받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이런 조례를 만들 생각을 못하고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고통받는 이야기를 접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이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하반기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는 희소식이 들리긴 하나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이고 법의 공백이 완전히 메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평군 자체적으로 군민 어느 한 사람도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손 내밀 곳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가,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양평군은 아직도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군민은 제도적 보호망에서 또다시 배제되고 앞서 말씀드린 센터의 사례

처럼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평군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 증진 조례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우려를 동시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권 증진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행정은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은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조례는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최근의 두 사례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집행부 담당자들과 회의를 하다 보면 늘 이게 관행이다, 항상 이렇게 해왔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물론 많은 공직자분들이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애쓰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해오던 것 이상의 방법을 찾아보지 않으려 하는 타성에 젖은 공무원분들도 다소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아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길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중단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길을 만들며 가려는 의지도 때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군민들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제도의 효율성은 결국 공무원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 여러분께 엄중히 촉구합니다. 타성에서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손을 놓는 순간 군민의 권리는 침해되고 양평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적극 행정만이 양평군 행정을 바로 세우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양평군의 행정이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소극적이고 타성에 젖은 행정으로는 더 이상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공직자가 적극 행정을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양평군민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 군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2025. 9. 1.(월) ~ 9. 5.(금)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총 4건)



•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오혜자 의원

양평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연구기관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기준, 절차, 의회 보고,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혜자 의원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에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지민희 의원

반려인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등록 대상동물에 대한 등록 의무 및 등록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동물복지 및 공존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최영보 의원

양평군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인식 확산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날 지정뿐 아니라 기념행사 개최, 시설 이용료 감면, 홍보 활동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함께 규정하고자 함.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장, 간사 선임 현황

특별위원회명	위원장	간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윤순옥 의원	최영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옥 의원	여현정 의원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의결의안 목록(총 24건)

연번	의안명	발의 및 제출자	의결결과
1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오혜자 의원	원안가결
2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혜자 의원	원안가결
3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최영보 의원	원안가결
4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지민희 의원	수정가결
5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6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7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8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9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0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수정가결
11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2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3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4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수정가결
15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수정가결
16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7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	양평군수	부 결
18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9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수	수정가결
20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21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양평군수	원안가결
22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평군수	수정가결
23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2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평군수	수정가결

PART

1-2



회기운영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서

영상회의록

오혜자 부의장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 10. 17.(금)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평군의회 부의장 오혜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故 정희철 면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병을 묻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마음이 무거운 게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삼십여 년 동안 오직 양평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성실한 공직자故 정희철 면장님께서 민중기 특검팀의 15시간에 달하는 조사 직후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쳐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비통함을 안겼습니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 지치고 힘들고 계속된 진실 요구, 강요, 무시, 치욕, 수모, 멸시, 자괴감. 고인이 남긴 메모 속에서 반복되는 이 말들이 고인이 남긴 다잉메시지임을 미리 알아채지 못해 미안합니다.

강압에 전혀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고인은 결국 죽음으로 억울함과 무고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로 들뜬 추석 연휴 끝나갈 무렵 홀로 깊은 절망 속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을 그를 생각하면 고인이 남긴 기록,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며 정해놓은 답에 끼워 맞추기식 수사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특검의 만행이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고 공포스러우며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게 합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심한 모멸감과 치욕,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살기 싫어질 만큼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수사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죽음으로 처음부터 정해놓은 답을 끼워맞추려는, 강요와 강압을 이기지 못한 자괴감에 삶을 버리게 한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타살이자 수사라는 이름을 빌려 무소불위 권력의 폭권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렵습니다.

특검 수사 중이거나 수사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특검팀은 강압은 없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된 말 뒤에는 언제나 또 다른 희생이 이어져 왔습니다. 강압적인 수사와 짜여진 진술 강요, 인권 유린과 그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특검에서 강압이 없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돼버리고, 특검이 혐의가 있다고만 주장하면 결과적으로 무죄가 증명되더라도 무소불위 권력의 수사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발생하는 피해는 오로지 힘 없는 군민과 남겨진 가족의 몫이 됩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수사의 정의가 바로 설 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특검 또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무고와 인권 침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특검에게도 묻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선량한 군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정의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는 법치의 기본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계기로 진상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조치를 한다

는 방침이라며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검토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로 포장해도 빛 좋은 개살구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건 이미 무고한 목숨을 잃었고 그건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검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실책입니다. 그로 인해 오랜 기간 성실한 공직자이자 믿음직한 동료였고 친절한 이웃이자 순수한 벗이었던 고인을 잃은 우리들의 상실은 영원히 메울 수 없고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직 특검의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남은 사람들을 계속 압박할지 모릅니다. 충격과 공포인 작금의 사태가 되풀이될지도, 또 다른 누군가가 막연히 생각했던 특검의 수사의 피해자가 어느 날 우리 자신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양평군의 공직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군민의 마음 또한 참담하기만 합니다. 특검은 더 이상 양평군의 공무원들을 불모로 고인에게 행한 것처럼 무리한 압박 수사를 이어가선 안 됩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압박이며, 힘없고 무고한 공직자들을 향한 잔혹한 탄압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故 정희철 면장님의 억울한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민중기 특검은 양평군 공무원을 불모로 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 둘째,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고인과 유가족들 그리고 군민 앞에 사죄하라. 셋째, 무소불위의 살인 특검이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검 수사에서 인권 침해 강압 수사가 발생하거나 수사 결과 최종 무고 판결 시에는 특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본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군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당부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메모가 공개된 경로나 고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따르면 공개된 메모는 유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겪은 억울함을 변호사에게 토로하며 전달한 것이라 담당 변호인을 통해 공개되었고, 고인의 SNS 활동 등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함부로 발설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과수 부검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가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지만 아직 수사 중이라 유서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을 비추어 볼 때 일부에서 주장하는 고인의 마지막 SNS 행적, 고인의 휴대폰을 촬영한 듯한 내용은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세상에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라 하여 수사적인 사건에 관련 있는 내용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관계자 동의 없이 공개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고가 날아온 날부터 영결식까지 내내 종일토록 내리는 비가 비통한 우리의 마음 같았습니다. 고인의 마지막이 너무나 가슴 아파 충격과 비탄에 젖어 자꾸 망연자실해지는 정신을 바쁘게 수습하다가도 손을 놓고 하염없이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본인의 책임을 다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선량한 공직자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침묵하며 무턱대고 순응하자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리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13만 군민이 겪고 있는 혼란을 수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심을 굳게 잡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고인이 죽음으로써 알리고자 한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무리한 특검 수사의 족쇄에서 벗어날 때까지 군민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故 정희철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5분 자유발언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故 정희철 단월면장님을
추모하며...

영상회의록

최영보 의원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2025. 10. 17.(금)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의원 최영보입니다. 최근 우리 양평군에서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공직자로서 평생을 성실히 봉직해 오신 故 정희철 면장님께서 세상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헌신과 성실함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지금도 믿기 어렵고 너무나 아프기만 합니다. 저 또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동료 공직사회의 일원으로서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故 정희철 면장님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군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군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지역을 사랑했고, 양평의 변화를 위해 조용히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런 분이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은 양평 공동체 전체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애도의 시간을 정치적 목적으로 오염시켜서는

안됩니다. 비극 앞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더 깊이 오래도록 고인을 기억하겠습니다. 고인의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왜곡되어 정치의 손에 흔들리지 않도록 유가족의 슬픔이 구겨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왜곡되거나 묻혀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끝까지 공정한 절차와 예의를 지켜 찾아내겠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야 할 이유는 다시는 누구의 삶도 똑같은 이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묵묵히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성실한 공직자였습니다. 그분이 살고 싶었을 세상, 공정과 정의가 최우선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평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겸허히 애도하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 바로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고, 유가족의 슬픔을 가장 덜어드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고인의 고통과 진심을 깊이 헤아리며 조용히 고개를 들고 옳은 길을 고르겠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결코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남긴 마지막 신호는 공직사회 전체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무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책임과 존중, 가치를 되새겨야 합니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적 폭풍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故 정희철 면장님께서 보여주신 성실함, 온화함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은 우리 모두가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가치입니다. 부디 하늘에서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내려놓으시고 편히 잠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회복하며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임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주고 있습니까!

침묵은 또 다른 침묵을 불러오고 비극을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분 자유발언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공무원에게 정치적책임을
지워서는 안된다.



여현정 의원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2025. 10. 17.(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먼저, 정희철 면장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생을 공직에 몸담고 헌신하며 살아오신 면장님의 고귀한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가슴에도 묻지 못할 한을 안고 살아가야 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고인의 죽음이 확인된 직후 고인의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결백을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고인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멈추어 세우겠다는 정치적 면죄부만을 노리는 반인륜적 행태입니다. 장례가 끝나지도 않은 10월 12일 기자회견을 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은 결백하며 특검의 수사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끊는 범죄행위이자 정치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인의 죽음 뒤에 숨어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비열함입니다. 메모에서 확인되었듯 고인이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끝

내 지켜야만 했던 김선교 의원에게 묻습니다.

수많은 의구심을 낳은 고인의 자필 메모는 어떤 경위로 특검 출석 당시에는 선임되지도 않았던 김선교 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당 소속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인 변호사에게 전달되었으며 유가족도 경찰도 아닌 김선교 의원과 국민의힘 당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수많은 군민들이 말합니다.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는데 가까운 생명이 지고 말았다. 민심이 말하는 그 책임질 사람은 수많은 부패와 비리에도 절대 입에 담아서 안 될 성역입니까?

김선교 의원과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을 당신들의 안위를 지키는 방패막이로 이용하여 고인을 욕되게 하지마십시오. 이 가슴 아픈 죽음의 배경은 특검 수사 이전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면제라는 특혜입니다. 최은순 일가가 공흥지구 개발로 8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수입을 얻었음에도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 전례 없는 일에 대해 어떻게 이런 특혜가 가능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연히 범죄사실이 존재하는데 당시 양평군수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던 김선교 의원이 나는, 나만은 책임이 없다,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후안무치입니다. 고통 속에 떠난 이는 그리고 십여 명의 또 다른 피의자 참고인들은 당신이 지켜내야 할 함께 한 동료 아니었습니까? 특검 조사로 고인이 느꼈을 압박감과 두려움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지킬 수 있었던 목숨입니다. 모를 리 없는 일들을 나는 모른다 잡아떼고, 나만 결백하다 주장하지만 않았어도 고인의 특검 조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하나둘 참고인으로, 피의자로 불러가는 것을 인지했을 때 모른다고 해라, 내 이름은 말하지 말라 입단속을 하는 대신 내가 시켰다고 진실을 말하라고만 이야기해 주어도 조사를 받고 온 공직자가 심경을 적은 메모에 군수의 지시를 인정한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김선교 의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문장이 어떤 경위에서든 쓰인 것을 보았을 때 미안하다, 이제부터 내가 책임지겠다고만 말해주어도 지킬 수 있는 목숨이었습니다. 이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데

정작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본인은, 단 한 번의 특검 조사도 받지 않은 김선교 의원은 이제라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고인의 잘못이 아니다. 직원들은 지시를 따랐을 뿐 아무것도 모른다, 모두가 내 책임이다. 공흥지구뿐만 아니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아직 한참이나 수사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는 그 누구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백번 양보해서 당신의 주장대로 결백하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던 김선교 의원은 고인의 죽음을 무기로 정치쇼를 벌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 특검에 출석하여 철저히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결백을 증명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잘잘못은 공직자들의 희생 뒤에 숨어서가 아니라 특검 조사를 통해 가리십시오. 그것이 고인을 온전히 추모하고 애도하며 당신의 말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길입니다. 한목숨 지키겠다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두를 잃게 되기 전에, 모두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진실을 말하고 처벌을 달게 받으십시오. 그것이 이 야만의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자 당신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고인이 떠났어도 진실은 결코 땅에 묻히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나는 결백하다는 주장은 공직자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더 이상 선량한 사람들을 권력형 비리에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정치적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지 마십시오. 공직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살아서, 모두 살아서 함께 이겨냅시다. 약자라는 이유로 기댈 곳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 세상, 힘없는 사람이라고 누구의 죄도 대신 뒤집어쓰고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분 자유발언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공직자의 명예로운 퇴직



영상회의록

지민희 의원

나선거구 국민의힘

2025. 10. 29.(수)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정에 힘쓰시는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13만여 양평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직자의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故 정희철 단월면장님을 눈물 속에 보내드렸습니다.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하시면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떠나시고 일주일 후 모든 사람들이 상실감과 참담함으로 몸서리치며 끔찍한 고통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여현정 의원이 말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으라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여현정 의원에 묻고 싶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진정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공무원과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녹취하고 공익이라는 변명으로 세상에 공개해서 공무원을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의혹만 앞세워서 무차별적인 고소와 고발을 통해 선량한 공직자들을 고통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도 유족과 군민들의 비통함은 도외시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근거 없는 비방과 의혹 제기로 고인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던진 고소와 고발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자신의 업무에 충실했던 공직자들뿐입니다. 고인 또한 그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께서 떠나신 일주일 후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인의 책임은 회피한 채 자신의 일에 충실했을 본인 죄 없는 공직자들에게 진실을 말하라며 강요했습니다. 고인을 추모한다면서도 애도와 추모는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정치싸움에만 몰두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고인을 추모한다면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책하며 사과하였어야만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정의로 포장하고, 진실을 말하라며 욕박지르고, 있지도 않은 일을 진실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현정 의원은 고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모든 선량한 공직자분들께도 사과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특검에 요구해야 합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여현정 의원이 항시 말하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특검팀의 강압수사를 자신의 죽음으로 고발한 고인의 억울한 희생 앞에서는 진영논리도, 정치적 이해관계도, 그 무엇도 의미가 없습니다.

양평의 모든 공직자들이 빈약한 보수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공직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양평과 군민을 위한다는 명예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나 그 명예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책임을 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양평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누가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공직자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되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여현정 의원은 자신의 무책임한 행위가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양평군민이며 여현정 의원 또한 군민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 달라는 군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군민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비극의 희생자로 만드는 행태는 그만두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양평군이 우리 양평군 공직자들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라도 공익이라는 핑계와 정의로 포장한 정치적 언동은 그만두고 공직자 보호를 위한 대의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故 정희철 단월면장님에 대한 진정한 애도요, 추모이며, 고인께서도 진정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저 또한 양평군민으로서 양평군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단호히 싸워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5. 10. 17.(금) ~ 10. 29.(수)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총 7건)

•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민희 의원**

모범공무원 표창 규정을 마련하여 군의회 직원들의 공직의식 함양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모범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표창을 신설하고 그 요건을 명시하고자 함.

•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민희 의원**

화장장려금의 신청 기간이 현행 90일에 불과하여 연고자의 사망으로 인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지원금의 신청 기간이 도과하여 신청 자격을 상실하는 불상사를 줄이기 위해 그 신청 기간을 180일로 연장하고자 함.


•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윤순옥 의원**

환경정화 운동의 실천 및 양평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군수의 책무로서 '쓰레기 담으며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양평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여현정 의원**

양평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군민의 참여 및 알 권리를 확대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의정모니터단의 역할 · 모집 · 구성 및 활동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양평군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현정 의원**

양평군과 군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 양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현정 의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보 의원**

특별휴가 조문에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휴가 부여 사유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장, 간사 선임 현황

특별위원회명	위원장	간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오혜자 의원	송진욱 의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지민희 의원	최영보 의원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특별위원회	여현정 의원	윤순옥 의원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의결의안 목록(총 27건)

연번	의안명	발의 및 제출자	의결결과
1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윤순옥 의원	원안가결
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지민희 의원	원안가결
3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윤순옥 의원	원안가결
4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보 의원	원안가결
5	양평군의회 의정보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여현정 의원	부 결
6	양평군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현정 의원	부 결
7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현정 의원	원안가결
8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민희 의원	원안가결
9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민희 의원	원안가결
10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수정가결
11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2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3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4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수정가결
15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부 결
16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수정가결
17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8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9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20	양평군 종합체육시설 사무대행 동의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21	양평군 연속지적도 및 연속주제도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22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23	지적기준점표지 현황조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24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25	양평군 다화용품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26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결제시의 건	양평군수	원안가결
27	2025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현장 내 일부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진입 임시계단이 위험하므로, 추가 안전시설 설치 및 진입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

교통 접근성이 낮아 이용 활성화가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군 차원의 관리·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

건축물의 특색과 관광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하므로, 구둔역 활용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역축제·인근 관광지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다회용품 세척시설

노후 건축물 활용에 따른 구조적 안전 우려가 있으므로, 정밀안전 점검 후 보강조치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바람



2025. 10. 22.(수) ~ 10. 23.(목)

양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인력 부족과 노후 하수관로로 처리 효율 저하 및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적정 인력 배치와 관로 관리 강화 및 필요 시 추가용량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수영장 스타터 위치, 샤워실 시설 미비, 유아풀 시야 확보 등 안전·편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은 재검토·보완하기 바람



물안개공원 근린공원 조성사업

기존 양강섬 부교 활용 방안이 미흡하므로, 철거 대신 타 사업 및 공원시설과 연계한 재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남한강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장애인 등 이용자를 위한 보호·편의시설이 부족하므로, 안내표지판 및 그늘막 설치와 경사로 안전성 점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중간보고특위



주요지적사항

• 오혜자 의원

- 1. 공사 운영**
 기획예산담당관
 양평공사의 위탁·대행사업 추진 시 공공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 점검해주시기 바람.
- 2. 한강수계기금**
 기후환경과
 한강수계기금 삭감분 회복이 미흡하고, 내년도 증액과 주민 실익 확보를 위한 군의 적극적 추진이 부족함.
- 3.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과
 군도·농어촌도로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과다 증가가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설계·관리로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방지할 것을 촉구함.



주요지적사항

• 지민희 의원

- 1. 기금 현황**
 기획예산담당관
 농업발전기금의 중요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신규사업 추진을 포함해 기금을 지속가능하게 확보해야함.
- 2. 관내기업 우선 계약**
 일자리경제과
 양평물 관내 기업 제품 우선 구매 활성화와 마케팅 강화를 위해 예산 증액, 홈페이지 개선, 상세페이지 지원, 기획전 운영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와 사후 관리가 중요할 것임.
- 3. 자전거 도로**
 도로과, 건설과
 생활자전거 활성화와 비분리형 자전거 도로 위험성 개선을 위해 도로과와 건설과의 협업과 시범 사업 추진을 당부드림.



주요지적사항

• 윤순옥 의원

- 1. 신규직원 안정 정착지원**
 총무담당관
 신규직원 숙소 지원 기준 명확화, 원거리 직원 배려, 내년도 숙소 확대 및 예산 반영이 필요함.
- 2. 버스노선체계**
 교통과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 시 철도·버스 연계성과 주민·운수업체 의견 반영을 철저히 하고, 중간보고회에 위원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청드림.
- 3. 양서면 양수리 및 용담리 지역 공영주차장**
 교통과
 양서면 양수리·용담리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치고, 시설물과 관제 시스템 보수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람.

2025. 10. 27.(월) ~ 10. 28.(화)



주요지적사항

• 최영보 의원

- 1.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현황
기획예산담당관
- 2. 양평군 위원회 등 운영현황
소통홍보담당관
- 3. 대통령선거 관련 문자·현수막 조치
총무담당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와 규칙은 실효성이 있어야 하며, 예외 규정으로 면제되는 조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위원회 현황·운영 파악과 연임·중복선임 관리 필요, 타 시군 사례 참고만 하지 말고 선제적 검토가 필요함.

선거 관련 문자·현수막 발송 시 군민이 오해 없도록 내용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주요지적사항

• 송진욱 의원

- 1. 공모사업
기획예산담당관
- 2. 가로등, 보안등 설치관리 현황
도시과
- 3. 회전교차로
도시과

공모사업 추진 시 군비 부담을 고려한 사전검토와 재정 건전성 확보, 주민 의견 수렴, 정책·지역 실정 부합 여부 점검, 사업 취소 시 신속하고 명확한 주민 피드백 등이 필요할 것임.

신규 가로등 설치 시 형식적 배분보다 시급성과 민원·현장 수요를 고려해 읍면별 차등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함.

회전교차로 사업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되, 중앙 시설물 설치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바람.



주요지적사항

• 여현정 의원

- 1. 언론 홍보비 집행내역
소통홍보담당관
- 2. 세월커뮤니티센터 세월정미소
문화체육과
- 3. 주택건설 공사
건축과

정치적 편향성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켰지만, 실제 집행과 모니터링 평가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함.

부기등기는 주민 선택 문제 아님, 필수 추진해야 할 것이며, 운영협 의체 구성과 운영규칙 마련, 갈등조정 프로그램 주민 참여형으로 설계 요청하며,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현황, 주민참여 현황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임.

강하면 동오리 건축공사 민원과 주민 간담회 거부 문제와 관련하여, 건축주·대리인과 주민 간 소통 강화와 피해 주민 보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PART

1-3



회기운영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아이들의 푸른 내일을 위한 양평군의 교육지원



영상회의록

최영보 의원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2025. 12. 1.(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평군 교육지원 현실을 돌아보고, 제대로 된 교육정책의 부재가 교육격차와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양평형 농촌 미래교육 전략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은 교육청 소관이라는 군의 수수방관적 태도를 짚고 싶습니다. 군수님, 군에서 교육 이야기를 꺼내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교육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산만 조금 보태고 있습니다.”입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 진로교육법, 평생교육법, 청소년기본법 등 다수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진로교육과 평생학습을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더 이상 교육청 안에서만 책임지는 일이 아니라, 군수님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복리를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핵

심 사무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교육 투자에 무관심한 지자체는 조려와 비전이 없고, 단기·소비성 사업에 머무르며 미래교육이나 인구정책과 연계한 전략이 거의 없습니다. 양평군의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양평군 학생 1인당 교육지원액은 약 75만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열 번째 수준입니다.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지원의 대부분은 급식비, 학교 환경, 시설 보수 등 단기적·소비적 사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디지털·AI 교육, 농촌 특화 미래교육, 지역 대학·기업 연계 진로교육 등 장기적 교육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과 인구정책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농촌은 교육격차와 인구감소라는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전체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지만, 노인 비율이 3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과 인구정책을 연계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인구유입 의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교육을 인구유입 전략으로 활용하는 지자체들은 농촌학교를 인구유입 거점으로 보고 기숙형 학교, 산촌유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평군은 농촌형 기숙학교, 산촌유학·전원학교 프로그램, 폐교·유휴공간 활용 등 실질적 미래교육 전략을 거의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청 협력사업조차 단순 시설 보수와 단발성 프로그램에 머물고 있으며, 인구유입 전략과 연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는 군수님과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1. 양평형 농촌 미래교육 종합계획 수립 : 교육지원, 진로교육, 농촌형 기숙학교, 산촌유학, 통학 지원, 폐교·유휴공간 활용, 평생학습, 청년 정착 정책을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설계해 주십시오.
- 2. 전담 조직 설치 및 교육청과 상설 협의체 구성 : 교육청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방 교육 발전과 투자교육 확대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3. 조려 정비·제정 : 진로교육과 교육지원 관련 법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기본계획·예산·평가·협의기구 설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농촌형 기숙학교 등 양평 대표 브랜드화 :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양평에 오는 미래를 만드는 상징적 사업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양평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교육 때문에 양평을 떠나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교육을 인구정책의 최우선 수단으로 삼고, 농촌형 교육격차 해소와 인구유입을 함께 꾀하는 양평형 농촌 미래교육 전략을 지금 즉시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양평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살아가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군이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먼저 내딛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양평군 상수원 관리지역 규제 개선 촉구



영상회의록

윤순옥 의원

가선거구 국민의힘

2025. 12. 1.(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혜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평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무공해 청정 자연, 그 아름다운 수식어 뒤에 너무 오래 가려져 왔던 이야기, 거미줄 같은 제약에

얽매인 삶을 감내해 온 주민들과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양평군의회가 일궈 온 노력의 땀방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속 시원한 해결책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한 사과의 말씀과 개선 방향을 함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여섯 가지 중첩규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규제지역 입장에서는 집을 조금 고치는 것도, 창고 하나를 짓는 것도, 작은 가게를 열어보려는 꿈조차 가로막히는 장벽이 되어 왔습니다.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은 없습니다. 다만, 그 대가를 누가,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양평군민의 목소리는 너무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것이 문제입니다. 양평군의회는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수변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의원으로서 저 역시 그리고 우리 의회 역시 이 용역이 규제는 지키되 주민의 삶도 숨통이 트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부분 수계법과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선제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방안과 시범사업 건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이 결론은 환경부가 2009년에 발주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의 개념을 바꾸고, 상속 및 증여 규정을 손보고, 상수원관리협정과 증장기계획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지만 결국 법을 고치지 않는 한 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연구용역 역시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했지만 결국 같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큰 기대를 품고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하며 기다려주신 군민 여러분께 민의를 대표하는 양평군의회 의원으로서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 외에 당장 보여드릴 수 있는 확실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점 정말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주민들에게는 한강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직접지원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소멸성 지원입니다. 현행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규제 지정 당시의 토지 소유자와 그를 직접 상속, 증여받는 1차 상속인까지만이 직접지원비 지급 대상입니다. 그다음 세대부터는 같은 땅 위에서 똑같은 규제에 고통받으면서도 직접지원비는

전혀 받지 못합니다. 지금 구조대로라면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세 상을 떠나실수록 직접지원비 예산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대체할 다른 보상 체계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규제는 대물림되는데 보상은 끊기게 되게 설계된 것입니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생색이자 선심성 임시방편에 불과했으며, 수도권에 깨끗한 물 공급이라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 규제지역 주민에게만 영구적이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온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마저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물러난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용역 결과와 환경부 선행연구 그리고 우리 의회의 논의를 종합하여 양평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첩규제 지역에 대한 상생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건의합니다. 어느 마을이 몇 가지 규제를 겹쳐 안고 있는지, 그로 인해 주거와 생업, 재산권에 어떤 피해들이 누적됐는지를 정량적으로 진단하는 군 단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경기도 공모사업, 국가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하여 규제지도와 함께 지원지도를 그리는 첫 작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줄어드는 직접지원비를 대신할 대체 보상 패키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접지원비가 세대교체에 따라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줄어드는 자리를 규제 마을에 대한 생활SOC 우선 투자, 아이들을 위한 장학, 교육, 교통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돌봄, 이동 지원으로 채우는 것은 양평군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직접지원비는 줄어도 마을의 생활과 아이들의 미래는 더 좋아진다는 것을 주민이 체감해야 합니다. 셋째, 양평형 주민지원사업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법과 정부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도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은 군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평군의 규제 마을의 친환경 농업, 농촌체험과 생태관광, 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소득증대사업으로, 보건, 복지, 문화시설을 복지증진사업으로, 장학 기금과 교육환경 개선을 육영사업으로 확대하여 규제를 극복할 양평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피해가 가장 큰 주민에게 혜택이 먼저 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절차를 조례와 세부 지침 등으로 촘촘히 반영하여 중첩규제 정도, 생활 불편 지수, 고령과 저소득 여부를 종합 반영한 우선 지원 원칙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희생한 주민에게 지원이 먼저

더 두텁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가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과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평군의회가 중심이 되어 경기도, 한강 상류 시군과 함께 다음과 같은 요구를 중앙정부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중첩규제 가중치를 반영한 주민지원사업 배분 기준을 마련할 것. 둘째, 직접지원비 단가의 현실화와 재상속 세대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지원 원칙을 도입할 것.

셋째, 주민지원사업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규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관련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것. 이미 경기도 의회에서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 증액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논의 중입니다. 양평군의회도 도의회 및 수변구역 규제지역들과 연대하여 법과 제도의 장벽을 바꾸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수변구역 규제 완화 연구용역에 큰 기대를 걸어 주셨던 주민들께 법을 바꿔야 한다는 원론적 결론 이외 흡족할 만한 대안을 내오지 못한 점, 양평군의회가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며 답을 찾았음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체감하실 변화까지 약속드리지 못한 점. 군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양평군의회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이는 비단 보호에만 적용되어야 할 개념은 아닐 겁니다. 서울시민들이 누리는 아리수, 깨끗한 수돗물은 양평군을 비롯한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들의 희생으로 정화된 것임을 알리고, 오래도록 누적된 희생에 합당한 가치가 부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서랍 속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양평군의 과제, 정부 및 경기도를 향한 법 개정 요구로 연결되도록 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기를 바랍니다.

중첩규제 속에서도 묵묵히 터전을 지켜오신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지원금 몇 푼 수준에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 전체에 대한 존중과 책임의 무게만큼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양평군의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조용한 위기 앞,
의회의 약속

윤순옥 의원

가선거구 국민의힘

2025. 12. 18.(목)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오혜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입니다.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이 남듭니다.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로서 군민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린 제9대 의회도 어느덧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 6개월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격변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며 내일을 열고 미래를 만들어온 지난 시간들엔 함께 쌓아온 노력과 성취, 소통하며 희망을 나눴은 매일들이 빼곡합니다. 수많은 날들이 지나 갔지만 의회가 군민 곁에서 지키려 했던 원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군민의 삶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가장 먼저 붙잡는 곳이 의회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9대 양평군의회가 걸어온 4년 가까운 시간을 군민 여러분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많은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며 군민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들을 다시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아직도 진행형이며, 의회의 결의는 단순한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이어져야 할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마다 군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졌던 수해 앞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복구의 무게를 군민만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국가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난방비와 물가로 숨이 가뻔던 시기에는 민생 예산 긴급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군민의 하루가 무너지면 지금의 지역의 내일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의 현실 앞에서는 공공의료원 유치를 외쳤습니다. 아플 때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권리,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잃지 않을 권리, 그 기본을 양평에서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한계를 바꾸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행정도 더 투명해지고 군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양평의 오랜 숙원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멈춰 섰을 때 의회는 백지화 철회와 조속한 정상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군민의 교통권과 지역의 미래가 정쟁 속에서 멈춰 서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민 안전에 문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는 중심관서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안전은 누구의 소관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양평이 감내해 온 규제에 대해서도 의회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상수원 규제로 인한 희생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흐름 앞에서 한강수계기금 정상화와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양평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군민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직자가 감당해야 했던 압박과 비극 앞에서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故 정희철 면장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은 끝까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고 다시는 어떤 공직자도 어떤 주민도 절망의 끝에서 홀로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비극을 그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우리 모두의 안전 또한 쉽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공직자의 인권과 안전 또한 지켜내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의회는 매 순간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결의와 건의들 중 많은 과제는 아직도 멈춰 있거나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양평을 조용한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밀어닥치기도 하지만 조용히 스며들어 어느 순간 버티지 못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일지 모르지만 고요함 속에서 위기는 더 깊게 우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중심에 재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제312회 양평군의회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번 예결특위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의회가 봐준 것 아니냐는 시선이 일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시각과 달랐습니다. 본예산 기준 2025년 약 760억 원, 도비가, 2026년에는 약 63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도비가 무려 122억 원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예산이 쪼개지고 또 쪼개져 올라왔습니다.

줄일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줄였고, 신규 사업은 주춤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사업은 멈출 수 없어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사업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흔들리고 국토위 매칭사업은 그대로인데, 군비 부담은 커져 어느 지역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우려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예산을 또 깎아버리면 결국 군민을 위한 사업 자체가 멈춰서거나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안 가결은 심사가 결코 느슨하거나 허술했던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 긴축의 끝까지 다다른 현실을 알기에 지금은 베어

내기보다 제대로 집행하고 성과로 증명하게 만드는 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숙고하여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대신 의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성과를 따져 묻고 꼼꼼한 결산으로 책임을 묻는 일 의회는 그 감시와 점검을 더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속도로 문제도 치안 우려도, 규제와 보상 문제도, 그리고 공직사회가 안고 있는 상처까지 모두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약속드립니다.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삶을 기준으로 말하겠습니다. 정쟁의 언어가 아니라 현장의 언어, 군민의 언어로 요구하겠습니다. 한 번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결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재난 앞에서, 민생 앞에서 군민의 의료와 안전 그리고 공직자의 인권 앞에서 양평군의회는 끝까지 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의회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깊이 새깁니다. 양평군의회는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성실한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의 상징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병오년의 힘차고 건강한 기운을 담아 더 따뜻하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 12. 1.(월) ~ 12. 18.(목)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총 1건)



•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송진욱 의원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양평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군수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자의 범위, 주거복지사업의 추진,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거복지를 구축하고자 함.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장, 간사 선임 현황

특별위원회명	위원장	간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영보 의원	지민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순옥 의원	여현정 의원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결의안 목록(총 25건)

연번	의안명	발의 및 제출자	의결결과
1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윤순옥 의원	원안가결
2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송진욱 의원	원안가결
3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4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수정가결
5	양평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6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7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8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수정가결
9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0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1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2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3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4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5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산갤러리 위탁 동의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6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위탁 동의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7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사무대행 동의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8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1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20	2026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2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2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23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24	2026년도 예산안	양평군수	원안가결
25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	양평군의회	원안가결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2025. 12. 15.(월) - 12. 17.(수)

“군민건강과 맨발걷기”

지민희 의원 2025.12.15.(월)

Q 웰니스 관광이 새로운 관광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맨발걷기는 군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운동이자 양평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관광 자원임. 이미 조성된 맨발걷기길과 세미원, 쉬자파크, 용문산, 남한강 등 자연자원을 연계하면 ‘모든 것이 관광이다’라는 군정 기조를 웰니스 관광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이에 맨발걷기길을 웰니스 관광의 축으로 발전시키는 방안과 전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 그리고 양평이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구상을 묻고자 함.

A 전진선 군수

양평의 자연환경과 맨발걷기길은 웰니스 관광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며, 현재 조성된 길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를 통해 군민 건강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고 밝힘. 보건·관광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치유와 힐링 중심의 웰니스 관광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함.

“반려문화”

지민희 의원 2025.12.17.(수)

Q 반려문화가 생활·관광·경제·복지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전용 인프라 구축, 친화관광 공모사업, 유기동물 예방과 교육·복지 정책 추진 계획을 묻고자 함.

A 전진선 군수

반려문화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용 시설 확충과 공모사업 참여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 교육 강화와 보호·입양 활성화 등 복지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함.

“자전거 활성화”

지민희 의원 2025.12.15.(월)

Q 양평군은 전국 최초 자전거레저특구 지정 이후 도로 개선, 단절 구간 연결, 안전 확보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환경을 발전시켜 왔음. 특구 지정 10년이 지난 지금은 ‘유지’가 아닌 ‘완성’과 ‘도약’이 필요한 시점임. 양평을 전국 제1의 자전거 성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 주요 자전거 도로 사업 추진 방식과 재원 확보 방안, 생활 자전거 활성화와 실내 자전거 교육장 조성 계획을 묻고자 함.

A 전진선 군수

주요 자전거 도로 연결과 위험 구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국비·도비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자전거 교육 확대, 노면 표시 등 안전 인프라 강화로 생활 자전거 문화 확산, 실내 자전거 교육장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지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함.

“강하대교”

지민희 의원 2025.12.17.(수)

Q 강하면 교통 소외 문제와 강하대교 건설 진행 현황, 타당성 검토 결과, 법정도로화 병행 여부를 묻고, 지역 주민 이동권 회복을 위한 군 의지를 확인하고자 함.

A 전진선 군수

강하면 교통 불편에 공감하며, 강하대교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됐음. 민선8기 들어 타당성 조사와 경기도 SOC 사업 협의를 진행했으며, 국지도 333호선과 연계 추진 계획임을 설명함.





“민선8기 4년, 공약과 성과”

윤순옥 의원 2025.12.15.(월)

Q 민선8기 출범 당시 제시한 117개 공약 중 다수가 완료 또는 이행 단계에 있음. 다만 공약 이행률만으로는 체감 문제와 임기 이후 과제에 대한 책임까지 설명되지 않음. 공약 설계 기준, 추진 과정에서 조정 사례, 평가단의 역할과 향후 독립성·투명성 강화 필요성,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 관리 방안, 남은 임기 우선 과제와 다음 군수에게 전달 메시지를 묻고자 함.

A 전진선 군수

공약은 단기 성과와 중·장기 군정 방향을 함께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일부 사업은 현실적 대안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함. 공약이행평가단은 초기 시행착오 후 점차 엄정한 점검을 수행하고 있음. 임기 이후 이어지는 사업은 다음 민선이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현 시점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남은 기간 공약 이행 완성도와 체감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친환경농업특구, 자전거레저특구”

윤순옥 의원 2025.12.15.(월)

Q 친환경농업특구와 자전거레저특구의 운영 현황과 실질적 연계, 인증 농가 증가와 구조적 변화, 청운수박 등 전략 품목 육성, 조례-위원회-조직 운영 실태, 헬스투어힐링특구 까지 세 특구를 체류형 관광 전략으로 연계하는 구상을 묻고자 함.

A 전진선 군수

친환경농업특구는 ‘물맑은양평’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광역형 특구로 운영됨. 인증 농가 증가는 지원과 인력 배치, 판로 확대 효과있음. 청운수박은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신규 농가 전액 지원과 청년 농업인 멘토링으로 생산 기반을 확대할 계획임. 조례와 위원회 운영 미흡은 제도 보완과 조직 체계 정비를 검토하며, 세 특구를 관광 관점에서 연계하는 융합형 체류 모델 필요성에 공감함.

“서울-양평 고속도로”

윤순옥 의원 2025.12.15.(월)

Q 서울-양평 고속도로 IC 설치 요구가 정치적 의혹으로 왜곡되며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 대한 우려, 특검 진행으로 행정이 손을 놓는 것이 옳은지, 대안 노선 검토와 IC 설치 등 양평의 이익 관철 전략을 묻고자 함.

A 전진선 군수

현 단계는 특검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나, IC 설치는 군민 요구임을 공감함.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대안 검토는 절차상 필요했고, 특검 종료 후 군민 의견을 반영한 국토부안 추진 준비를 하겠다고 밝힘. 연계 교통망과 IC 설치 방향도 군민 의견에 반영할 계획임.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방안”

윤순옥 의원 2025.12.17.(수)

Q 인력 배치 시 업무량 기준 관리 여부, 전문성 부족에 따른 품질 공백 방지, 휴직 대비 인력뱅크 운영, 업무대행자 보상 체계, 취약 직렬 충원 대책, 2026년 조직 개편 반영 여부를 묻고자 함.

A 전진선 군수

결원은 거의 없으나 업무량 증가로 현장 부담이 크다고 설명함. 업무량 재산정과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하며, 일부 부서 인력 재배치, 한시임기제·인력뱅크 확대 계획을 밝힘. 2026년 조직 개편은 업무량과 미래 행정 수요를 반영해 기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의회 정원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함.

“도시개발사업”

윤순옥 의원 2025.12.17.(수)

Q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변동 과정, 제도적 절차 여부, 사업기간 소급 연장 목적, 공직자 권리 보호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A 전진선 군수

기간 내 재부과가 가능하며, 유사 사례는 다른 사업에서도 존재함. 사업기간 조정은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정 판단이며, 공직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운영 중임을 밝힘.



“친환경농업특구”

오혜자 의장 2025.12.15.(월)

Q 친환경농업의 지속을 위해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며, 특히 앞으로는 판매처 확대가 핵심 과제라고 생각함. 유통센터 민간위탁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묻고자 함. 또한 향후 판매처 확대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자 함.

A 전진선 군수

민간위탁 이후 생산량과 판매 규모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함. 앞으로 위탁기관과 협력해 운영을 강화하겠음. 또한 로컬푸드장 확대와 '물맑은 양평' 홍보를 통해 판매처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음.



“양평군의 교육 지원”

최영보 의원 2025.12.15.(월)

Q 군이 교육을 단순 예산 지원이 아닌 인구정책·미래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지원 사업 내용·성과 점검 여부, 입학지원금 등 새로운 교육 정책 도입 가능성을 묻고자 함.

A 전진선 군수

교육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미래교육사업 등을 통해 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함. 입학지원금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타 지역 사례와 효과를 검토할 필요성을 공감함. 정책 도입 시 군민 요구와 여론을 함께 살펴야 하며, 향후 검토하겠다고 밝힘.



군정질문 전체 회의록 확인

QR코드를 통해 본 회기의 군정질문 및 회의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양평군 환경교육선 운영”

송진욱 의원 2025.12.16.(화)

Q 남한강 환경교육선 사업이 관광·환경·건강·안전을 종합 구현할 수 있는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사업 목표와 상징성, 교육적·경제적 효과, 재정 타당성, 운항 코스 최적화, 기존 관광 자원 연계 전략을 묻고자 함.

A 전진선 군수

규제 완화를 통해 추진 여건이 마련된 만큼 단계적·신중하게 추진하며, 초기 시범 운항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과에 따라 노선과 기능을 확대할 계획임. 환경교육선은 교육·관광을 결합한 양평 차별화 콘텐츠로 운영하며, 강변 경관·생태 관리와 기존 관광 인프라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힘.



“서울-양평 고속도로”

여현정 의원 2025.12.15.(월)

Q 고속도로 건설 목적(6번 국도 정체 해소, 수도권-강원권 교통 분산)에 비춰 종점 변경과 노선 수정 필요성, IC 설치 문제, 원안 노선 기반 실질적 대안 마련 방안을 묻고자 함.

A 전진선 군수

IC 설치의 주민 요구이며 공감함. 종점·노선 변경은 군 이익을 고려한 의견 제시였고, 특정 노선 확정은 없다고 설명함. 향후 타당성 조사 재진행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양평에 최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용문-홍천 광역철도”

송진욱 의원 2025.12.17.(수)

Q 광역철도 사업과 용문역 KTX 정차는 동부권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기반 과제임. 예타 진행 상황, 경제성·정책성 대응 전략, 추가 정차역, 역세권 개발, 홍천군 협력 및 공동 대응 전략, 철도 인프라 장기 추진 계획을 묻고자 함.

A 전진선 군수

예타 통과를 목표로 경제성·정책성 분석과 공동 의견 제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역세권 개발과 추가 정차역 검토로 경제성을 보완하며, 홍천군과 MOU·세미나를 통해 협력 체계를 유지함. 용문역 KTX 정차 필요성을 국토부·코레일에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힘.

“친환경 산업, 산업단지 성장과 일자리로”

여현정 의원 2025.12.15.(월)

Q 규제와 탄소중립 의무 속에서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 RE100·재생에너지·친환경 산업 전환 구상, 입점 기업 지원과 차별화 전략, 산업단지 모델 검토 및 공유지 활용 계획을 묻고자 함.

A 전진선 군수

규제를 발전의 디딤돌로 삼아, 비교적 규제가 적은 지역 중심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관내 기업을 집약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 친환경 기업 차별화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양동산업단지 성공적 입주를 우선 과제로 하며, 제안된 모델과 공유지 활용 방안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함.

PART

2



결의문

-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문
-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인권유린 규탄 결의문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 10. 29.(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문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

먼저 양평군의회는 故 정희철 단월면장이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과 동료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공직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중대한 계기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공직자는 군민을 위해 봉사하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역할은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이며, 공정한 절차와 인권 보호는 공직사회의 신뢰와 사명감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다.

그러나 최근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정한 절차와 인권 보호가 미흡할 경우, 그 결과는 개인의 명예를 짓밟고 행정 전체의 신뢰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고인은 양평군의 공무원으로서 일평생을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였다. 그러하기에 이번 사건은 양평군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고인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검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으며, 조사 이후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부담 속에서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공직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한다.

이 사건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나 과도한 압박이 있었는지, 특검의 조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고인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강압 및 강요 의혹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또 다른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인권보호·공정성·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자치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치부하지 않고, 공직자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하며, 향후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경위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거나 과도한 수사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 117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중 불합리한 압박이나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과 공직자 인권 보호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13만여 군민과 함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 10. 29.

양평군의회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8.(목)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인권유린 규탄 결의문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

지난 12월 1일, 故 정희철 단월면장님께서 떠나신 지 50여 일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우리는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수많은 인권유린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준칙상의 시간 상한인 8시간을 넘겼고 수사관은 권한을 남용하여 고인에게 의무 없는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하였습니다.

양평경찰서의 경찰들은 고인의 유가족에게 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특검의 검사들은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인에 대한 부검을 강행하였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특검 수사관 1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팀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징계 권고, 경찰·수사기관을 향한 강도 높은 인권 절차 개선 권고, 국회에 특검법 인권보호 조항 명문화 요구 등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故 정희철 단월면장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 의뢰 이후에도 그 어떤 수사기관도 실질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 또한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고인의 유서 중 일부만이 공개되었고 우리는 다시 한번 고인이 느꼈을 참담함과 억울함에 분루를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권력이 한 개인의 존엄과 생명을 버랑 끝으로 몰아넣은 참극이며, 특검팀 내부의 인권침해와 지휘·감독 실패를 보여주는 시스템 붕괴의 실체입니다. 국가가 진실을 밝히려며 부여한 막강한 특검 권한이 오히려 한 공무원을 몰아붙이고 절망으로 내몬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며 명백한 권력남용입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에 의해 특검팀의 인권유린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금 특별수사단은 더 이상 '특검'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사받던 고인이 남긴 유서에 기록된 고통과 공포가 사실로 드러났기에 특검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였으며 국가의 조사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특검팀 전체의 책임성을 명확히 확인한 결론이며 수사관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인권 감수성을 상실하고 기본 절차까지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장시간 조사, 강압적 언행, 유서 미교부, 부검 강행 등은 한 명이 저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특검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 없이는 이번 사건은 결코 마무리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검이라는 제도가 오히려 통제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해체하고 특검팀의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수사 전 과정의 인권보호를 명문화하고 조사 시간의 상한을 강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즉시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특검의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 기록을 의무화하고 유족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등 특검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즉각 시행하라.

이번 인권위의 결론은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특검팀 해체와 재구성, 지휘부의 책임 규명 및 제도 개선은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필연적인 우리의 소명이다.

양평군의회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죽음에 대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정의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25. 12. 18.

양평군의회



PART

3



정책연구활동

양평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물환경 규제 합리화 방안





양평군 상수원 관리지역 규제개선방안 연구용역

양평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물환경 규제 합리화 방안

양평군의회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군의 발전을 제약해 온 중첩 규제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환경 보전과 지역 성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그 주요 결과를 군민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1. 양평군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 '중첩 규제'의 사슬

양평군은 경기도 내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수변 중심 도시이지만,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 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 등 겹겹이 쌓인 규제에 묶여 있음.

- 경제적 위기: 2023년 기준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는 20.5%로 경기도 시·군 평균(38.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279만 원(2022년 기준)으로 평균의 53%에 그쳐 있음.

- 산업의 불균형: 제조업 기반이 거의 전무하여 공장용지 비율이 인접한 이천시(2.26%)의 38분의 1 수준인 0.06%에 머물고 있음.

- 지방소멸의 위협: 이미 고령인구 비율이 31%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250(2024년 기준)으로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음.

2. 군민과 전문가의 목소리: "안전장치를 갖춘 관리형 완화"

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델파이 분석 결과, 규제 개선에 대한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됨.

- 규제 피로감과 기대: 응답자의 대다수가 현행 규제가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준다고 인식하며, 규제 완화 시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71.8%)가 매우 높음.

- 환경에 대한 책임: 단순히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친환경 시설 설치 의무화(69.9%)와 개발 이익의 환경 보전 기금 조성(71.4%) 등 조건을 전제로 한 '단계적·관리형 완화'를 지지하고 있음.

- 행정 신뢰: 군민들은 환경 훼손을 우려하면서도 양평군의 관리 능력을 신뢰(71.8%)하며 정책 추진의 힘을 실어주었음.

3.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된 '규제 개선'의 타당성

연구진은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과학적으로 관리 가능한 '관리형 규제 완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음.

- 경제적 가치: 20년간 약 472억 원의 순현재가치(NPV)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의 활로를 열 것으로 기대됨.

- 환경적 안전성: 시범적 완화 시 추가되는 수질 오염 부하량(BOD, T-P)은 실제 잔여 용량의 3% 미만으로, 현재의 하수처리 기술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임이 확인되었음.

4. 미래를 향한 제언: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의 조화

양평군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다음의 정책 제언을 토대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제언 1. 한강수계기금 구조 개선과 물이용부담금 현실화: 장기간 동결된 물이용부담금을 물가와 규제 강도를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상류 지역의 규제 부담에 상응하는 재정적 보상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임.

- 제언 2. 과학적 입증 기반의 민관 합동 거버넌스 구축: 수질·환경·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입증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관리형·차등형 규제 전환을 추진해야 함.

- 제언 3. 관리형 규제 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 조례를 통한 관리형 규제 완화의 제도화를 출발점으로 삼아,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상위법 특례 도입을 단계적으로 건의할 것임.

- 제언 4. 팔당 수계 7개 시·군 협의체를 통한 공동 대응 강화: 팔당 수계 상류 7개 시·군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물이용 부담금·기금·규제 개선에 대한 협상력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함.

PART

4



의정소식

양평군의의회 주요 소식





제9대 양평군의회 개원 3주년 기념

장애인복지관 배식봉사로 시작한 3주년 기념 활동

지난 2022년 7월 1일 출범한 제9대 양평군의회가 어느덧 개원 3주년을 맞이했다. 전반기 2년은 윤순옥 의장이, 후반기 1년은 황선호 의장이 의회를 이끌며, 양평군의회는 지난 3년간 언제나 군민의 삶 가까이에서,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이번 3주년을 맞아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군민과 의미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마련하고자, 양평군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황선호 의장을 비롯해 오혜자 부의장, 윤순옥, 최영보, 송진욱, 지민희 의원이 함께해 직접 배식에 나서고 복지관 이용자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식사를 전달하며 정을 나눴다.

이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에서 함께 하겠다는 의회의 초심과 다짐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소통을 통한 신뢰강화, 균형과 협력을 통한 발전 가속화,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 차별화된 정책 제안을 비전으로 삼아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묵묵히 실천해왔다.

이제, 개원 3주년을 맞아 양평군의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금 생각해본다.





제9대 양평군의회 개원 3주년 기념

공부하는 의회, 더 나은 내일을 그린다



양평군의회는 단순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넘어,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군정 각 분야의 실태를 점검하고, 군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들은 스스로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학습하고 토론하며 실천해왔다. 제9대 양평군의회는 지난 3년간 총 6개의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며 '정책 중심의 의회'를 향한 발걸음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

2022년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와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회를, 2023년도에는 양평군 희망발전 연구회와 양평군 재정진단 연구회를, 2024년도에는 양평군 스포츠 관광 연구회와 양평군 6차산업 연구회를 구성해 깊이 있는 연구를 펼치고 있다.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은 '배우는 의회', '현장을 아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과정이자, 군민과 함께 성장해 가는 의정의



또 다른 이름이다. 앞으로도 양평군의회는 더 깊이 있는 고민과 더 따뜻한 시선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처럼 양평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지향하며, 소통과 참여, 현장 중심의 실천을 바탕으로 힘 없이 달려가고 있다. 앞으로도 제9대 양평군의회는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초심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양평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황선호 의장은 "지난 3년은 군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더 나은 양평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다가서려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시간도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발로 뛰고, 행동하는 의회로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제9대 양평군의회 하반기 오혜자 의장

군민 속으로, 더 가까이...
"소통·화합·균형으로 따뜻한 의정"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하는 의정'

오혜자 의장은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군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민 불편과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먼저 파악하고, 작은 민원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생활밀착형 의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생 정책과 지역 발전 과제는 힘을 모아 추진하되, 감사와 비판이 필요한 사안에는 원칙 있는 견제를 통해 균형 잡힌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 의회'

오 의장은 취임 소감에서 군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곳인 만큼 경청과 조정의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원 간 소통과 배려를 의정의 기본으로 삼아, 갈등보다 공감과 협의를 통한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의원 각자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양평군의회가 만들겠습니다!

오 의장은 "의장 배지는 군민이 부여한 책무의 상징"이라며, 군민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민원일수록 끝까지 해법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며, 제9대 하반기 양평군의회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집행부와는 협력하되 '원칙 있는 견제'

오 의장은 집행기관과의 관계와 관련해 "양평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은 강화하되, 원칙 있는 견제는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정책과 현안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의회'구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전반기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 만드는 하반기'

전반기 활동에 대해 오 의장은 현장을 찾아 군민 목소리를 들으며 의정의 기본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조례 발의, 정책 제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 의정 역량을 더욱 체계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제1회 양평군의회의회장배 시니어 탁구대회' 성황리 개최

양평군의회는 2025년 9월 6일 양평생활체육공원 탁구장에서 '제1회 양평군의회의회장배 시니어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20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회는 탁구를 통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양평군의회가 주최하고, 양평군 탁구협회가 주관하여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양평군 탁구협회에 등록된 동호회 회원 중 60세 이상 회원이 참가하는 시니어 맞춤형 대회로 마련되어, 참가자들에게 활발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황선호 의장은 "올해 제1회로 개최된 의장배 시니어 탁구대회가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동호인들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가 참가자 여러분께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의장배 체육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5월 '제2회 양평군의회의회장배 인라인 스피드대회', '제2회 양평군의회의회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11월 '제1회 양평군의회의회장배 볼링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3회 양평군의회의회장배 배드민턴대회' 성황리 개최

양평군의회는 2025년 10월 26일 양평생활체육공원 갈산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제3회 양평군의회의회장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선수단과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합을 펼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배드민턴을 통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양평군의회가 주최하고, 양평군 배드민턴협회가 주관했다. 특히 관내 동호인들이 대거 참가해 다양한 실력을 겨루는 한편, 참가자들에게 활발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군민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양평군의회 의장 직무대리 오혜자 부의장은 "올해 제3회를 맞은 의장배 배드민턴대회가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동호인들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참가자 여러분 모두가 이번 대회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의장배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월 '제2회 양평군의회의회장배 인라인 스피드대회', '제2회 양평군의회의회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11월 '제1회 양평군의회의회장배 볼링대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9월에는 '제1회 양평군의회의회장배 시니어 탁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하는 의회



매월 집행부와의 정책협의회 운영으로 군정현황 수시점검

양평군의회는 매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보완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인 군정 방향을 조율하는 '정책 동반자'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제2차 의정자문단 정기회 개최

양평군의회는 2025. 11. 17.(월) 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2025년 제2차 의정자문단 정기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과 정책 제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정기회로, 의정자문단 위원 11명과 군의회 의원 4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층 인구 유입 방안,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정책, 미래 농업 분야의 스마트팜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으며, 군의회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PART

5



군정소식

양평군 주요 소식





양평군, '겨울엔 양평 불빛愛' 성황리에 종료

행사 종료 후 양평시장으로 인파 몰리며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 보여

양평군은 2025년의 마지막 날 양평군청 앞 남한강테라스 일원에서 열린 '제3회 '겨울엔 양평, 불빛愛: 2025년과 2026년을 사랑으로 잇다' 행사를 군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력 양평에서 행복하게 겨울나기'를 표어로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 중인 '겨울엔 양평'의 특별 행사로, 체험·공연·불꽃놀이로 이어지는 시간대별 프로그램을 구성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겨울엔 양평' 참여 업체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양평군 홍보대사인 트로트 가수 진혜진을 비롯해 에메랄드 캐슬의 김선형, 자두 등의 특별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남한강을 배경으로 겨울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는 연말의 감성을 더하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행사 기간 동안 양평시장과 축제장 인근 음식점, 카페, 소규모 상점 등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졌고, 특히 불꽃놀이 종료 후 행사 참여객들이 양평시장과 인근 상권으로 몰리며 늦은 시간까지 거리에 활기가 이어졌다.

양평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매년 연말이면 서울로 가는 사람이 많아 손님이 적었는데, 올해는 평소보다 손님이 확실히 늘었다"며 "앞으로도 연말마다 이런 행사가 열려 양평 시내가 더욱 활기를 띠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겨울엔 양평'은 겨울철에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 딸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도장 모이기 여행(스탬프 투어)형 축제로, 자세한 내용은 '겨울엔 양평' 공식 누리집 또는 양평여행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평군,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성료

12개 읍·면의 정체성을 담고, 군민과 함께 군정의 내일을 그린다

지난 1월 6일 양평읍을 시작으로 21일 개군면까지 관내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한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소통한마당은 단순한 연두순시 형식의 주민 간담회를 넘어, 군정 운영 방향과 읍·면별 미래 계획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는 '참여형·대화형 소통행정'으로 운영돼 의미를 더했다.

올해 소통한마당의 가장 큰 변화는 12개 읍·면의 고유한 정체성을 무대에 담아낸 점이다. 각 읍·면의 특색을 반영한 키워드와 사진을 활용해 무대 현수막을 제작함으로써, 행사 공간 자체가 해당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했다. '양평의 중심, 양평읍', '스포츠와 힐링의 도시 강상면', '두물이 만나는 정원의 도시 양서면', '전쟁의 기억에서 평화의 도시로, 지평면' 등 읍·면별 상징 문구는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며 각 지역이 지향하는 발전 방향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소통한마당의 첫 순서로 양평군수는 2026년 군정 성과와 군정 계획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군정 운영 방향을 '민생 보호 강화', '관광문화벨트 완성', '미래도시

도약의 세 가지 축으로 제시했다. 이어 각 읍·면장이 2026년에 추진될 읍·면별 주요 사업과 중점 과제를 공유함으로써, 군정 계획이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동네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해될 수 있도록 했다.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상·하수도, 도로·교통, 복지·환경 등 생활과 밀접한 건의사항 총 183건이 접수됐으며,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무대에 함께 올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기존의 좌석 답변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눈을 맞추고 호흡하며 소통하는 실질적인 대화 구조로의 전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앞으로도 군정 운영 과정을 군민과 투명하게 공유 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을 통해 '희망과 감동이 흐르는 매력양평'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소통한마당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은 부서별 검토를 거쳐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양평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양평 교통 숨통 틔운다’ 양근대교 건설공사 2월 말 착공

군비 100억 원 추가 투입으로 행정절차 등 지연 요인 해소

양평읍~강상면 4차로 연결... 상습 정체 개선 기대

양평군은 상습 교통 정체 구간으로 꼽혀온 양근대교 확장 공사를 오는 2월 말 착공한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계약 체결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양근대교 일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국지도 88호선, 남양평IC 등이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로, 주말과 출퇴근 시간대마다 교통 정체가 반복돼 왔다. 이번 ‘양근대교 건설공사’는 이러한 병목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민선8기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으로 추진됐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며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군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증가 사업비 중 100억 원을 군비로 추가 부담하는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해, 타당성 조사로 인한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해소했다. 공사는 기존 2차로 교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접 구간에 2차로 교량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양평읍과 강상면을 잇는 구간이 왕복 4차로로 확장돼 상·하행 교통 흐름이 분리되고, 통행시간 단축과 교통 정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국지도 88호선 강상~강하 구간 4차로 확장 등 주변 도로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화돼 동서축 교통망의 효율이 높아지고, 관광객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스템 통합 '스마트 양평톡톡'으로 한 번에

'스마트 양평톡톡' 일원화 운영으로 대형폐기물 간편 신고·체계적 관리 실현

양평군 군민맞춤 지능형 통합서비스

스마트 양평톡톡

지능형 행정 통합서비스

스마트 양평톡톡

공공시설부터 대형 폐기물 배출까지
손쉽게 예약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일상을 누리보세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방법 일원화 안내

온라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가
'스마트 양평톡톡'으로 일원화됩니다.

시행일 2026. 4. 1. 부터

신고방법 스마트양평톡톡 접속 배출신고
(모바일·온라인 PC 모두 가능 / 비회원 가능)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청 청소과 ☎ 031-770-3405

스마트 양평톡톡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하기

CLICK



양평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스템을 모바일 행정 플랫폼 '스마트 양평톡톡'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운영은 기존에 양평군청 누리집과 '스마트 양평톡톡'으로 나누어 운영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주민들은 '스마트 양평톡톡' 앱 또는 웹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부터 수수료 결제, 배출 및 수거 일정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는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주민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었고 본인 인증도 필수였으나, 이번 통합 운영으로 컴퓨터를 통한 배출신고와 비회원 신고가 가능해져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양평군청 누리집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서비스는 3월 31일까지 병행 운영되며, 군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이순환거버넌스'를 통한 대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등 대형 폐가전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방문 수거가 가능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원순환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양평군은 이번 통합 운영과 폐가전 무상 수거 제도를 통해 폐기물 처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불법 투기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년도 양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

 **연간 운영계획 총 7회, 76일 운영**

회기구분	횟수	운영기간	운영시기
정례회	2회	총 36일	9월, 12월
임사회	5회	총 40일	상반기 2회, 하반기 3회

 **월별 세부일정**

일정		회기명	일수	주요안건
1월	1. 30.(금) ~ 2. 9.(월)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사회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월	3. 20.(금) ~ 3. 30.(월)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사회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 • 추가경정 예산안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월	7. 1.(수)	제315회 양평군의회 임사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단 선거 • 제10대 양평군의회 개원식
	7. 23.(목) ~ 7. 31.(금)	제316회 양평군의회 임사회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자료요구
9월	9. 1.(화) ~ 9. 18.(금)	제317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 안건
10월	10. 23.(금) ~ 10. 30.(금)	제318회 양평군의회 임사회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12월	12. 1.(화) ~ 12. 18.(금)	제31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7년도 예산안, 출자·출연, 자금운용 및 주민지원사업 • 군정에 관한 질문, 추가경정 예산안 등

* 회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6년도 양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 달력표

1월 제313회 임시회(11일간)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1.(수) 신정

2월 제313회 임시회(11일간)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2.14.(토)~18.(수) 설 연휴

3월 제314회 임시회(11일간)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3.1.(일) 삼일절 / 3.2.(월) 대체휴일

4월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5월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5.5.(월) 어린이날
- 5.24.(일) 부처님오신날
- 5.25.(월) 대체휴무일

6월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6.3.(수) 전국동시지방선거
- 6.6.(토) 현충일

7월 제315회 임시회(1일간) 제316회 임시회(9일간)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월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8.15.(금) 광복절
- 8.17.(월) 대체휴무일

9월 제317회 제1차 정례회(18일간)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9.24.(목)~27.(일) 추석 연휴

10월 제318회 임시회(8일간)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0.3.(토) 개천절
- 10.5.(월) 대체휴무일
- 10.9.(금) 한글날

11월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월 제319회 제2차 정례회(18일간)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2.25.(금) 성탄절



의회 참여 안내



회의 방청 신청 방법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 속에서 성숙합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참여가
더없이 필요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청을 바랍니다.
또한, 비회기 중이라도 의회시설 견학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팀 (031-770-2527)
✓ 방청신청바로가기

홈페이지 적극 활용하기!

1. 어떻게 찾아보나요?

양평군의회 홈페이지(www.ypcouncil.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양평군의회" 검색하기!

2. 어떻게 활용하나요?

- 양평군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의회소식, 의원소개,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영상회의록을 통해 생동감있는 의회 영상을 시청할수 있습니다.
* 모바일, 태블릿으로도 확인 가능

양평군의회 SNS 함께하기



페이스북에서 '양평의회' 검색

www.facebook.com/ypcountycouncil/

팔로우

좋아요



유튜브에서 '양평군의회' 검색

www.youtube.com/@양평군의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홈페이지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의정소식지 무료구독 신청안내



양평군의회는 연 2회(상·하반기)
의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의정소식지를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구독신청

신청기간 : 수시

문의 : 의회사무과 홍보정책팀(031-770-2539)



양평읍 양평생활체육공원(양평갈산누리봄 축제 장소)